

정부가 작은 농지를 빌려 대규모 생산자에게 한꺼번에 빌려주는 농지중간관리기구 (농지집적뱅크) 사업이 전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

☞ 농지중간관리기구(농지집적뱅크)

- 농지중간관리사업법에 기초하여 설치된 조직
- 농업강화를 위한 국가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'14년도부터 운용이 시작되어, 이미 46도부현에 설치되었음 (도쿄도 제외 일본 전국)
- 지역 내에서 분산되어 있는 농지나 경작방치농지를 일괄로 빌린 뒤, 대규모 농가나 농업생산법인 등에 빌려줌
- 임차기간을 대략적으로 10년이상으로 상정하며 기업의 농업 신규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음

◇ 농지집적뱅크의 장점

- 일본에서는 경작방치농지는 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. 전국의 농업종사자의 60%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'75년에 13.1만 ha였던 방치농지는 '10년에는 3배를 넘는 39.6만 ha로 확대됐음
- 그러나 농림수산성이 '11년에 전국의 65세 이상의 농가 약 15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이용하도록 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농가는 80%를 넘으며 팔고 싶다는 대답은 4%이었음
- 빌려주는 것도 파는 것도 싫은 농가에 대해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차용인과의 사이에 들어가 중개함으로써 농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효과가 있음

◇ 농지집적뱅크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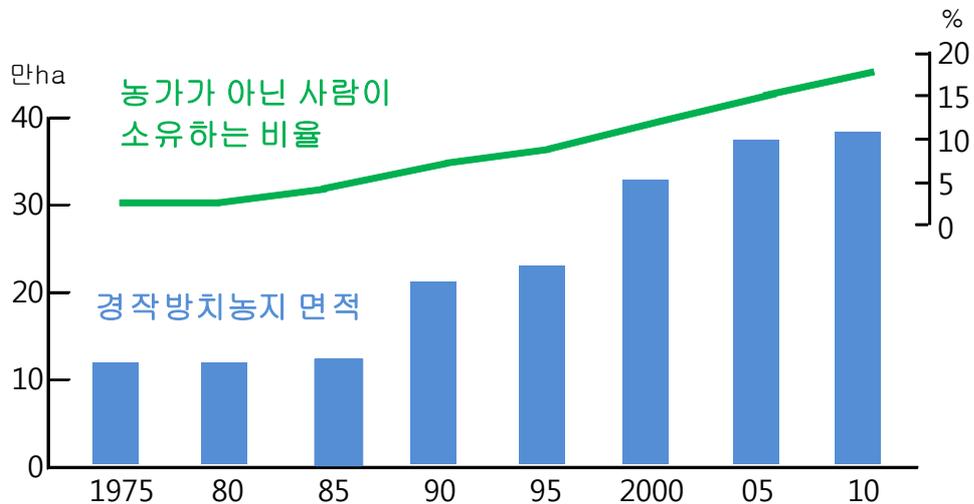
- 농지집적의 큰 문제점의 하나가 빌리고 싶은 농지는 편리성이 높은 일부에 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에 치우치지 않은 채로 임차인을 찾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음
- 거기서 기구에서는 수요를 발굴해내는 역할도 주어져있어 기구나 임대인의 장려금이 설정되어 있음
- 기구는 사업비의 70%는 나라가 보조하지만, 남은 30%도 토지를 빌려준 실적에 대해 최대 25% 보조하는 걸로 하여 농지를 빌려준 면적이 커질수록 부담이 적어지는 구조

- 임대인에게는 협력금을 준비하여 0.5ha 초과 2.0ha 이하를 빌려준 경우에는 한 집 당 50만 엔, 빌려준 토지가 있는 지역에게도 빌려준 비율에 따라 10a 당 2만 엔부터 3만 6천 엔의 협력금을 지불함. 또 기구가 빌린 이웃 토지를 빌린다면 10a 당 2만 엔의 집적 협력금을 지불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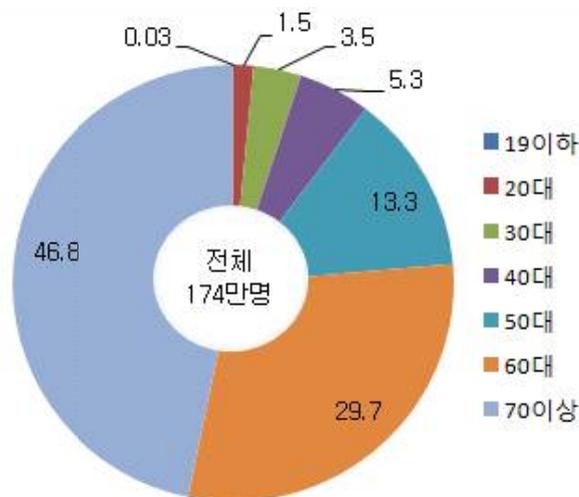
◇ 향후의 전망

- 이 제도는 이제 막 시작한 참이며 농지에는 용수로 등의 공유시설도 있어 농지를 빌려 거기서만 경작하면 농사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지적도 있음
- 지역에는 운용 면에서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있어 6월부터 지역 담당자와 의견교환회를 열고 있음. 제도는 만들면 끝이 아니다.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,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들면서,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필요함

< 확대하는 경작방치농지 >



< 세대별 일본 농업 종사자 >



출 처 : 일본경제신문 (2014.7.21)